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원 '릴레이 챌린지' 확산

정치, 학계, 노동계 동참... 전 시민 참여로 유치 열기 '후끈'

전라남도 나주시가 국가 대형 연구 인프라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염원하며 추진 중인 '릴레이 챌린지'가 지역사회 의 뜨거운 호응 속에 확산하고 있다.

지난 23일 윤병태 나주시장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두 번째 주자로 참여한 데 이어 윤 시장이 지목한 세 명의 인사들이 릴레이에 동참하며 유치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이 지목한 신성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각각 응원 메시지와 사진을 공개하며 나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로 나주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정치권, 학계, 노동계가 한뜻으로 참여하는 '원팀' 분위기가 형성되며 인공태양 유치를 향한 시민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정철원 담양군수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를 응원하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들 역시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유치돼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유치전에 선도적인 홍보와 더불어 범도민 시민 서명운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오는 11월 11일까



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오는 31일까지 집중 서명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는 앞으로 더 많은 기관과 시민

이 참여하는 '시민 릴레이 캠페인'을 확대 전개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로서 나주의 가능성과 열정을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망자의 날 축제'로 세계정원 문화 확장 멕시코 '망자의 날'을 한 주 먼저 정원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25일, 글로벌 문화정원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멕시코의 전통축제 '망자의 날(Dia de los Muertos)'을 재현한 '멕시코 망자의 정원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정원, 각국의 문화를 입다'라는 주제로, 멕시코의 고유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축제다. '망자의 날'은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멕시코의 대표 축제로, 매년 11월 1일과 2일에 고인을 추모하며 삶을 기념하는 축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를 1주일 앞당겨 정원 속 세계문화 체험행사로 구성해 관람객에게 이색적인 문화 경험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골가면 만들기', '페이퍼페인팅', '머리꽃 장식 만들기' 등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마리골드 꽃길과 해골 조형물, '파펠 피카도(papel picado)'로 꾸민 현장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해골 분장을 한 배우들과 함께 즐기는 '게임 이벤트', '보물찾기' 등이 이어지며, 국가정원의 숨겨진 보석인 멕시코정원은 오랜만에 관람객의 발길과 웃음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멕시코정원 일대는 코스프레 복장을 한 아이들과 가족단위 방문객들로 붐볐고, SNS를 통한 인증사진과 후기 게시물도 잇달아 올라왔다. 게시물들은 "국가정원만이 가진 세계정원의 특별한 문화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단순한 축제를 넘어 체험, 학습, 관광, 외교 요소를 모두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축제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정원 안에 담아내는 시도로, 관람형 공간을 체험과 교류의 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정원에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더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세계 속 문화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민 기자

"청림이 춤추는 갈대축제" 군민과 함께하는 청림캠페인

제10회 춤추는 강진만 갈대축제 현장에서 청림 실천 다짐

등이 진행됐다.

강진군은 올해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비롯해 강진 청자축제, 작전 코끼리마늘꽃 3Days축제, 전라병영성축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서 총 7회에 걸쳐 청림운동을 전개하며 청림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청림메시지 카드를 부착한 화분을 관내 경

로당과 복지회관 등에 전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림 한 끼' 캠페인 등 다채로운 활동을 추진하며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전반에 청림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며 청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진군은 청림문화를 군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실

천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림은 행정의 기본이자 신뢰의 출발점이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청림을 생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림1번지 강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청림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모든 행정 분야에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군이 지난 25일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현장에서 청림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림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림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강진군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계기가 됐다. 특히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청림 실천의 의미를 한층 강화해 캠페인 현장에서는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림 홍보물 배부와 청림 다짐 기념촬영

담양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온(溫) 성장 프로젝트' 추진

위기 초등학생 가정 대상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

적 경험과 심리적 유대를 높였다.

또한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결합해 가족관계 회복 효과를 극대화했다.

센터와 교육지원청은 이번 과정에서 확인된 학부모·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욕구

를 토대로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가정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와 가족 회복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담양군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9시부터 24시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담, 집단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성군이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5%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이용자는 기존 15% 할인율에 5%를 더해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충전 시 10% 할인, 사용 후 돌려받는 '캐시백' 10% 할인으로 나눠 적용된다. 장성지역 1462

장성군, 내달 9일까지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20% 할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기존15% 할인에 5% 추가 할인

개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한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표어로 내건 전국 규모 행사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소비자는 20% 할인 혜택을 받고, 지역 상가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고흥군, 전국 최초 국가산단 RE100 실현 목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RE100 산단으로 조성 박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8일 군청 흥양홀에서 민간 에너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제3차 업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고흥군이 지역 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RE10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현황 점검 ▲RE100 산업단지 조성 로드맵 구체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 확충 방안 ▲민간 투자 및 기술지원 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군은 이번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권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향후 스마트팜과 농공단지의 RE100 달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3차 협의는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46만 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흥-보래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에 맞춰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